

셀그룹 제자양육  
기초용

도서출판 빛샘

# 셀그룹 제자양육 기초용

**지 은 이** 박영

**펴 낸 곳** 도서출판 빛샘

**초판발행** 2019년 10월 20일

**개정 3쇄** 2020년 5월 23일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81번길 19-22(율전동174-26)

**E-MAIL** jvcbitsaem@naver.com

**홈페이지** <http://jesuscell.net>

**연 락 처** 031-271-6420

**팩 스** 031-271-0179

ISBN 979-11-90042-06-2 (03230)

---

\* 이 출판물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Chance Choice Change*

#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셀그룹 제자양육 기초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돋는 교재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를 이 교재를 통해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사회 환경이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 베드로전서 4장 8절 -

『셀그룹 제자양육 기초용』을 통한 따뜻한 사랑의 만남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많은 이의 안식처가 되는 숲이 되듯이 이 교재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삶이 회복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며,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꿈이 가득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마을셀교회 담임목사 박영



**Be One Disciple Make One**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





## 목 차

- 1과**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 2과**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 3과**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 4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 5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 6과** 나에게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 7과** 성도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사명입니다

1.

##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이사야 43:1~3]

-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유명한 승려들이 이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한마디를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원효대사 이후에 불교의 최고승이라고 말하는 성철 스님도 마지막 죽을 때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한자성어로 기록된 그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 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 갈래나 되도다.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성철스님은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분이셨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에 겪는 비극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소크라테스 이후 온 인류에게 계속되어온 질문이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 어떤 세계가 또 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 많은 지식은 사람들에게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 1. 나는 누구일까요?

(1) 나는 \_\_\_\_\_ 대로 창조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26~27)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 중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받은 사람인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사랑,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은 바로 '나'입니다.

(창세기 1:26~27)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민수기 6:24~26)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

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_\_\_\_\_입니다.**

(민수기 6:24~26)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길

원하시며,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며 나를 돋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외로움으로 혼자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창세기 3:1~4)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

리라

## 2. 사람의 불행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1) 사단의 유혹으로 \_\_\_\_\_ 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1~4)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고통스런 죄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2) \_\_\_\_\_가 멀어질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3:23)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로 인해 두려움과 질병, 부끄러움, 우울증 등 여러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23)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3.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 (1) 예수 그리스도는 \_\_\_\_\_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사야 53:3~6)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저주를 나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평안을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3~6)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4:6)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_\_\_\_\_ 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6)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행복을 맛 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 영접기도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당신을 환영하오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의 생애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 4.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 \_\_\_\_\_ 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8~9)

당신이 받은 구원(영생)의 선물은

돈이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자격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을 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존재  
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당신에게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8~9)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한복음 1:12)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 \_\_\_\_\_ 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12)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

---

(이사야 53:6)

6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 도다

(3)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이사야 53:6)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양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당신은 이제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

---

1.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오늘 제자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 

-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싶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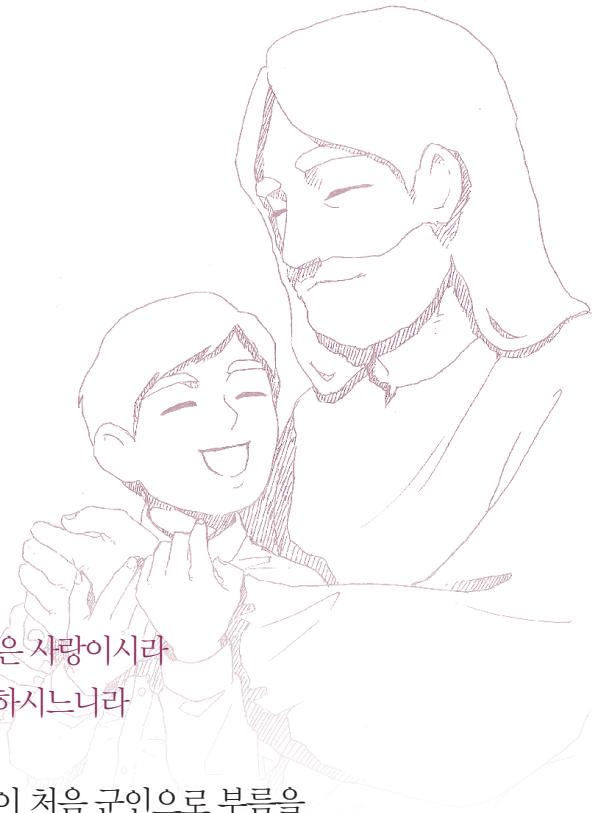
-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 2.

#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름다운 자매와 약혼한 한 청년이 처음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군인은 광야전투에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그 자매는 그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귀가할 날만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낯선 글씨체의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내가 양팔을 다 잃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주 어렵소! 나 스스로 쓸 수 없지만 한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써주고 있소.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이오.

그러나 남은 생애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 밖에 없게 됐소.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맷은 약혼의 의무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즉시 젊은 자매는 다음 기차를 타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자기 팔로 그의 목을 껴안고 그를 포옹하며

"나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겠어요! 나의 양손이 당신을 도울 것이며 나는 당신을 돌봐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어요."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확고부동한 혼신은 젊은 군인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이처럼 뜻밖의 고통스런 일을 당하여 슬픔과 낙심에 빠져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여인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 1.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1)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모두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인 나를 창조하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1)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복음 15:18~24)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암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18~24)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모두 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오자 입을 맞추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비록 둘째 아들과 같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달려와 목을 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나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나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 2.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듯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수록 점점 늪에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던져지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피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 승리를 누리는 구원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

(2) 예수님은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10~11)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에게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주고 내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10~11)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3.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5~6)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가 다시 출생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의 출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3:5~6)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14:16)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  
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 성령님은 나를 위로 하시고 희망 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16)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위로자, 돋는 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에도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며, 스스로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

---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3-24]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 부부를 이야기할 때 두 명이지만 한 몸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두 명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부부는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각각 인격을 가지신 독립된 존재이지만,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 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오늘 제자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 
-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싶나요?

- 
-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3.

##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에베소서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샘터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술, 도박, 게임, 섹스, 스포츠, 동창회, 동호회를 통해서 행복의 생수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만족은 얻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또 다른 샘터를 기웃거립니다.

참된 행복의 샘터가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샘터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듬뿍 담겨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샘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교회야말로 광야같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는 구원의 샘터, 행복의 샘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을 나눕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따뜻한 품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 1.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건물을 생각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조직이나 사회단체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참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에게 교회가 필요하며, 교회도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가끔 "나는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렇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죄를 이길 수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한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때때로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6)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6)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출생과 혈통으로 된 가정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된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와 뜻을 따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돈을 투자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상점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며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맡습니다.

자녀들은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며 엄마, 아빠를 돋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손님이 아니라 한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민낯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곳  
입니다. 따라서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책임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베소서 1:23)

싱가포르에 가면 두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 수족관이고 다른 하나는 주롱새 공원입니다. 주롱새 공원에는 공원 전체가 새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물도 쳐 놓지 않았는데 어떤 새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꼬리를 다 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갈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예베소서 1:23)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 2. 교회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23)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곤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1)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23)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무와 선택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최대의 특권입니다.

예배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인간관계 등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와 비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2:42)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 신앙생활은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42)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서로의 집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장작불이 타고 있는 난로에서 장작더미 한 개만 떼어놓아 보십시오.

떨어져 나온 그 하나의 장작이 잘 타겠습니까?

여러 개의 장작개비가 모일 때 불은 훨씬 더 잘 타오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이미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

### 3. 셀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 (1) 오늘날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디모데후서 3:1~2)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발달은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인격적인 만남과 어우러짐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개인주의가 갈수록 깊어져 인간적인 만남을 멀리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외로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더욱 모이고 함께하는 강한 가족공동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모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가족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소그룹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셀교회입니다.

---

---

(디모데후서 3:1~2)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행전 2:46)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 셀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46)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인내하고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셀교회는 이러한 초대교회를 모델로 이 시대에 재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

---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오늘 제자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 

-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싶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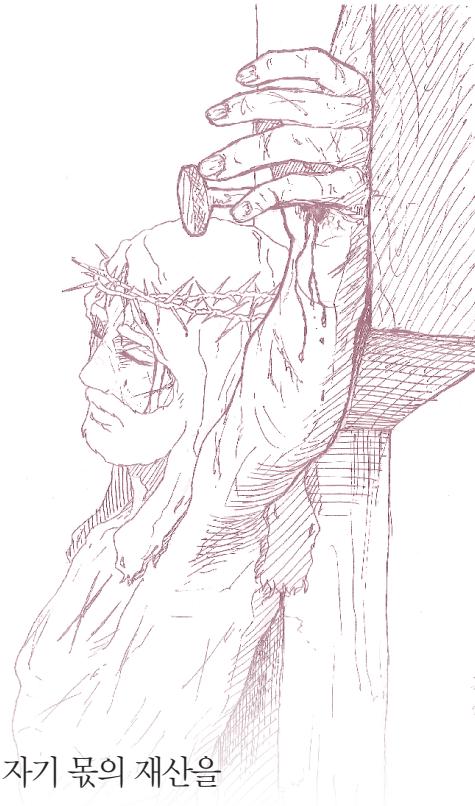
- 나에게 영원한 가족인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 4.

##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돌아온 탕자에 이어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떠났다가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불효했던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고생고생하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그는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란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날 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슬픔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예수님에 대하여 글을 쓴다면 당신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 1.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유일한 \_\_\_\_\_ 이십니다.

(사도행전 4:12)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죄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말해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일들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룰 수 있지만, 구원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12)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 2.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30~31)

구원이란 다양한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도 천국을 가기 이전에 현재의 삶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사도행전 16:30~31)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즉, 구원이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와 그 날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누가복음 16:19~24)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 라이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  
로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  
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  
데를 훑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  
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 3. 인생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_\_\_\_\_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19~24)

SBS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  
가를 주제로 방영을 했습니다. [저 세상으로의 여행, 1995.7.29. 방영] 임상학적  
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하는 말이 '사후의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방종하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밖에 앉아 얻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지와 부자가 모두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했습니다.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부자는  
탄식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에 냉수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수천 년 역사에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부귀, 영화, 공명, 영웅  
호걸, 열사라도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빌려온 인생 터전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빌려온 것이요, 가정도 빌려온 것이요, 직장과 나라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평안이냐, 영원한 슬픔이냐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1)

---



---

#### 4. 예수님은 우리의 \_\_\_\_\_입니다. (요한복음 14:6)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갔을 때 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정자에서 쉬고 있는데 정자 지붕에서  
기둥을 타고 땅까지 수많은 개미 떼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짓궂은  
한 집사님이 기둥을 타고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 개미 떼 중간쯤에 살짝 라이터  
불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20여 마리가 '앗, 뜨거워!'하며 땅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떼를 지어 나란히 기둥을 타고  
내려오던 수백 마리 개미 떼들이 라이터 불을 댄 기둥 부근에 오자 갑자기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개미 떼가 길을 잃고 방황했을까요?

(요한복음 14:6)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  
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개미 떼는 앞서가는 개미가 꽁무니에서 쏟아내는 '페로몬'이라는 분비물을 후각을 이용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페로몬'이 라이터 불을 붙이는 순간 다 증발해버려서 개미 떼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 것입니다.

개미에게는 '페로몬'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

---

(고린도후서 5:8~10)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봄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 5. 예수 믿는 우리는 \_\_\_\_\_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8~10)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생명이 있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그대로 썩어버리는 생명이 없는 달걀입니다.

사람도 겉모습은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 영원히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쉽게 이겨내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단을 고백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

---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오늘 제자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 

-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싶나요?
- 

-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 5.

#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5:4~6]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인도의 설화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고양이와 쥐 한마리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쥐는 고양이 앞에 별별 떨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술사는 쥐가 불쌍해서 마술을 부려 고양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는 고양이가 된 후에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는 개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개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개로 바뀐 쥐가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 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쥐는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설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호랑이가 되어도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황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 1.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1)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_\_\_\_\_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골로새서 2:13~15)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막혀 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보며 시합에 질까 두려워하지 않듯이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골로새서 2:13~15)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  
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  
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  
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2)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_\_\_\_\_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베소서 1:4~6)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부족해 보이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나를 끝까지 존귀한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에베소서 1:4~6)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하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8:33~34)

33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시는 자시니라

(3)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_\_\_\_\_ 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33~34)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의 의와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 2.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1~2)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1)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_\_\_\_\_에 빠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1~2)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정죄, 죄책감, 두려움은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와 넘어짐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혀튼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가 1:5)

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2)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_\_\_\_\_ 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 1:5)

이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햇볕에 피부가 검게  
타서 초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늘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너처럼 시커멓고 초라한 여자가 어떻게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지?"

그러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던 술람미 여인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의 검고 초라한 모습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신부야!"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조건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검게 된 동물의 가죽)같이 검고 볼품이 없을 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빛나고 화려한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_\_\_\_\_ 않습니다. (시편 136:1)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나의 행위나 노력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36:1)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3.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8)

18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 나를 위해 죽으신 \_\_\_\_\_ 을 항상 의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

---

(마태복음 12:50)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니라 하시더라

(2) 함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_\_\_\_\_ 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50)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어른과 같은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장작도 하나만 타고 있으면  
불이 금방 꺼지지만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그 불길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당신을 건강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

---

(3)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_\_\_\_\_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4~5)

말씀과 기도는 승리자의 삶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승리자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4~5)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 함께 나누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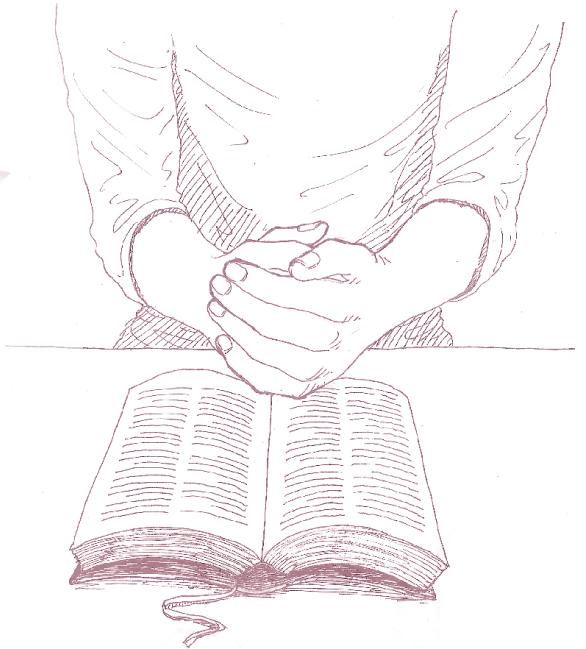
- 오늘 제자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싶나요?

- 나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6.

# 나에게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디모데후서 3:15~16]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전 세계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6,000여 부족이 애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류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책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미움도 가장 많이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합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교인이 일어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물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칼빈을 골려주려는 단지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소!"

성경은 인생 만사를 위한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려다 일생을 낭비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 1. 성경이 무엇입니까?

(1) 성경은 \_\_\_\_\_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20~21)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주제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에서부터 선지자, 학자, 어부, 농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자가 한분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무리 완벽한 세계 명작이라 할지라도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이기에 지루해지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읽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거듭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평생에 걸쳐 수십 번을 읽어도 감동이 작아지기는커녕, 더욱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20~21)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밀한 것임이라

(요한복음 20:30~31)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  
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2)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20:30~31)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16)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3) 성경은 믿음의 삶이 성장하도록 인도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16)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세상의 교훈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경우에 성경은 책망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없이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것은 대부분 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성경말씀에는 \_\_\_\_\_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5~9)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의 세무과장입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모두 불의한 재산이었음을 감안하면 그것은 사실상 전 재산의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말씀을 가까이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



---

(누가복음 19:5~9)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하시니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  
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 2. 기도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놀이에 너무 열중하다보니 썰물이 밀려나가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강한 썰물 때문에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스미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친구들과 함께 배 밑창에 머리를 대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 멀리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배에 의해서 구조되어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로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삼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13~14)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 기도는 \_\_\_\_\_입니다. (요한복음 14:13~14)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부분 말로 표현됩니다. 기도할 때는 많은  
말보다도 분명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 기도는 \_\_\_\_\_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7)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지면 모든 것이 부족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목회자를 찾아온 성도에게 "집사님, 기도 안하셨지요?"라고 물어보면 백발백중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육체는 살아 있으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기도는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7)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일서 5:14~15)

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 (3)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5:14~15)

기도는 만능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라도 기어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자."라는 생각  
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초적인 지혜요, 근본적인 힘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릴 때,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썩히지 마시고 맘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6.

나에게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 함께 나누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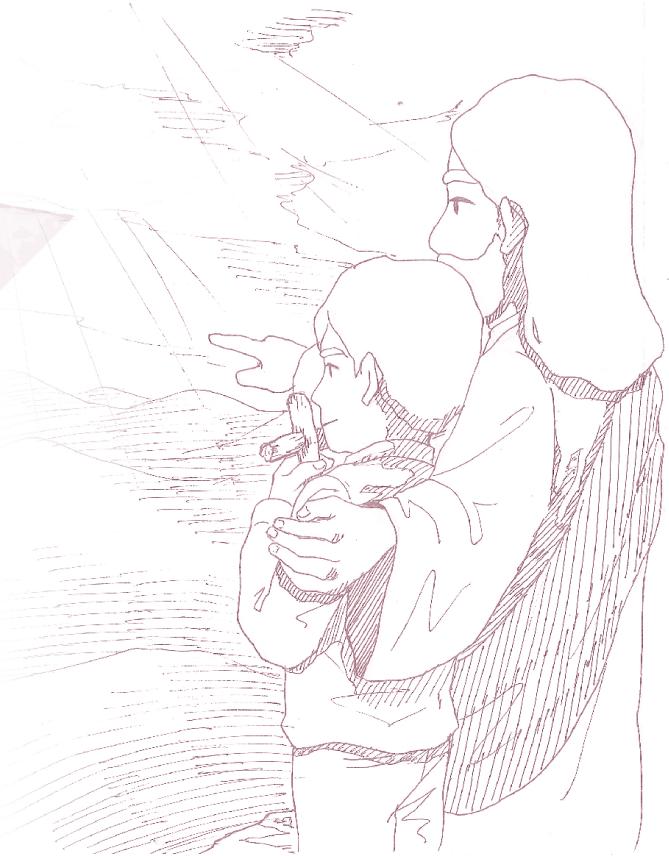
- 오늘 제자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 

-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싶나요?
- 

- 나에게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

# 7.

## 성도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한 19세기 미국의 대 부흥 전도자 무디는 하루 한 사람에게 꼭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나가 전도대상을 찾는데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무디는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그 술주정뱅이는 화를 벌컥 내며 무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디는 겨우 피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으나 그 후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근심이 한 심령을 회개하고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 1.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 (1)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15~16)

구원받은 성도라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구원받은 증거이며, 영적 생명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은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적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주된 사역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43)

(마가복음 16:15~16)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 (2)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1)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전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1)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은 죄에 매여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려 보지만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전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 보기에도 미련해 보이는 전도가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다니엘 12:3)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_\_\_\_\_ 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 12:3)

하나님은 충성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성도들 중에 상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상 받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종은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상을 받고,  
어떤 종은 다섯 고을 권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최고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



---

## 2. 성도는 제자 삼는 것이 사명입니다.

(1)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_\_\_\_\_ 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18~20)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 명령 외에 또 하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전도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실제로 제자 삼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셨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삶으로 보여 주신 핵심가치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주님이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며 ‘제자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제자 삼는 일, 제자화의 명령에 힘쓰는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은 제자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 삼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한없이 축복하십니다.

---



---

(마태복음 28:18~20)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10~11)

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  
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2)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복음 5:10~11)

제자란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  
하며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이며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따라서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 필요와 만족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 필요와 만족보다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또한 스승과 늘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대가 지불하고,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로 훈련되어  
현신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13~15)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 (3)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13~15)

제자훈련의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자훈련은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내 직업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침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오늘 제자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 
-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다시 전달해주고 싶나요?

- 
-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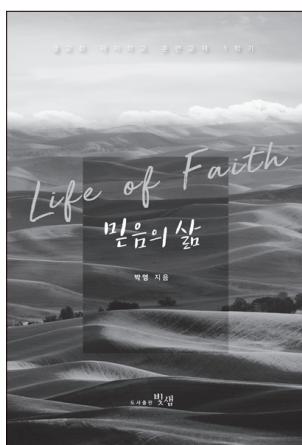
# 빛샘

## 사명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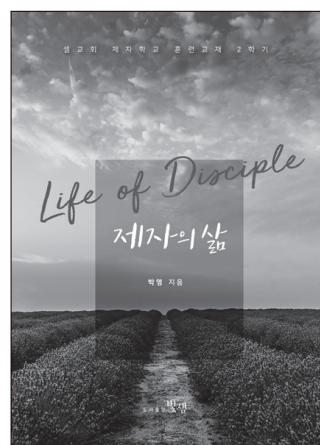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 열방으로 빛을 선포하는 빛샘
2.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빛샘
3.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빛샘
4. 충성된 제자를 세우는 빛샘
5.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빛샘

### 셀교회 제자학교 훈련교재 시리즈



1학기 믿음의 삶



2학기 제자의 삶



3학기 리더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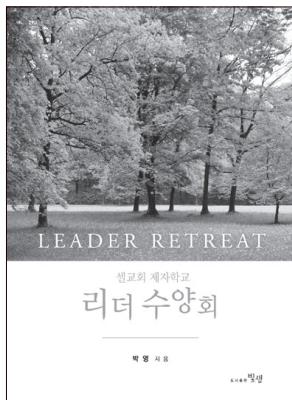
## 셀교회 제자학교 수양회 시리즈



HAPPY HEALING CAMP

행복치유수양회

박영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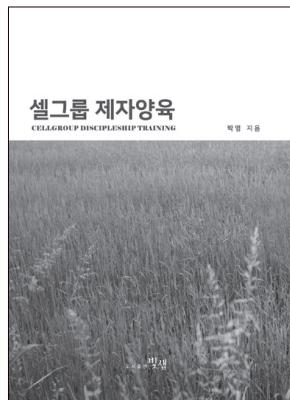


LEADER RETREAT

셀교회 제자학교  
리더 수양회

박영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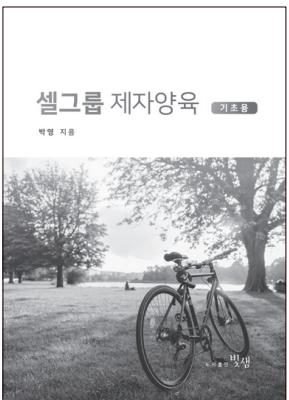
## 소그룹 제자양육 시리즈



셀그룹 제자양육

CELL GROUP DISCIPLESHIP TRAINING

박영자음



셀그룹 제자양육

기초

박영자음

행복치유수양회

리더수양회

셀그룹 제자양육  
심화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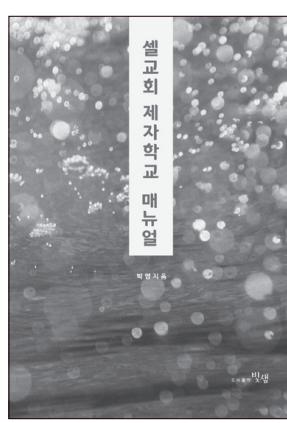
셀그룹 제자양육  
기초용

## 셀교회 시스템 매뉴얼 시리즈



셀교회가  
답이다

박영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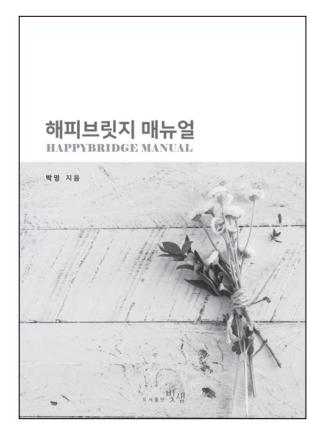
셀교회  
제자학교  
매뉴얼

박영자음



파워셀을  
디자인하라

박영자음



해피브릿지 매뉴얼

HAPPYBRIDGE MANUAL

박영자음

셀교회가 답이다

셀교회 제자학교 매뉴얼

파워셀을 디자인하라

해피브릿지 매뉴얼



*Chance Choice Change*



